

### 1) 주제문

사회복지의 공리주의적 관점

### 2) 생각해볼 읽을 거리(제시문)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행복을 좋은 것이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행위의 옳음은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와 비례하며 행위의 그름은 불행의 산출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이때 행복이란 쾌락을 의미하거나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며, 불행이란 고통을 의미하거나 쾌락의 결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먼저 어떤 행동이 한 개인에게 초래하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각각 합산한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만약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으면 그 개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는 옳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통 쪽이 많으면 그것은 그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된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쾌락의 합과 고통의 합을 계산해 낸다. 그리고 양쪽을 비교했을 때 쾌락의 합이 고통의 합보다 크면, 그 행위는 관련된 개인들의 전체 혹은 공동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옳은 행위로 평가되며, 반대로 고통의 합이 더 클 경우에는 그 행위는 같은 공동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2011학년도 성균관대 수시(1교시) 기출문제

### 3) 관련된 사상가의 입장

공리주의를 창시한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를 내세우며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쾌락은 곧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쾌락을 좇을 권리를 지녔으며, 더 많은 양의 쾌락을 주고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곧 도덕적이고 선이라고 한다.

#### 4) 생각해볼 질문 2~3 가지

1. 사회복지 정책을 세울 때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분야에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상황에서 공리주의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ex. 교육 분야에 복지 정책을 투자하면 그만큼 건강 분야에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교육으로 얻는 쾌락과 건강으로 얻는 쾌락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인데도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걸까?

2. 사회복지차원에서 소수의 짙은 행복과 다수의 얇은 행복,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ex. 건강이 위독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값비싼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하자. 이는 건강이 위독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행복이다. 하지만 수술비가 비싸 사람 한 명을 살릴 비용으로 아프지 않은 일반 시민 30명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

3. 쾌락과 고통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은 상황일 때 공리주의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저 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안락사를 하면 매일 겪던 고통은 사라지겠지만 과연 그것이 살아있음으로써 얻던 행복을 능가하는가? 이처럼 고통과 쾌락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리주의적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 자료1. 싱글생글) [아는 만큼 쓰는 논술] (5) 공리주의

내용 : 2번 항목에 작성한 제시문 내용입니다.

공리주의는 많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이미 배운 주제이므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功利主義·utilitarianism)는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킨다.

2011학년도 성균관대 수시(1교시) 기출문제의 제시문을 보자.

<제시문1>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행복을 좋은 것이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행위의 옳음은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와 비례하며 행위의 그름은 불행의 산출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이때 행복이란 쾌락을 의미하거나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며, 불행이란 고통을 의미하거나 쾌락의 결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먼저 어떤 행동이 한 개인에게 초래하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각각 합산한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만약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으면 그 개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는 옳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통 쪽이 많으면 그것은 그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된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쾌락의 합과 고통의 합을 계산해 낸다. 그리고 양쪽을 비교했을 때 쾌락의 합이 고통의 합보다 크면, 그 행위는 관련된 개인들의 전체 혹은 공동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옳은 행위로 평가되며, 반대로 고통의 합이 더 클 경우에는 그 행위는 같은 공동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제시문을 통해 사회적인 행복의 양을 수학적 계산을 통해 추출해내려고 하는 공리주의 사상의 핵심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리주의가 말하는 정의는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이다. 우리는 이미 공리주의적 기초 위에 세워진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산 방법에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아마도 공리주의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은 매우 달라져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3051668991>